

진안군, 소비쿠폰 92.8%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서비스로 소외계층 지원 강화

진안군은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전 군민이 소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4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률은 92.8%로 정책 효과가 전 군민에게 고르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별로는 일반 군민이 92%, 한부모 및 차상위 계층이 92%, 기초생활수급자는 93%의 신청률을 기록해 계층 간 격차 없이 고르게 혜택이 전달됐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민생대책으로, 진안군은 전담 TF를 구성해 신청부터 지급, 홍보, 현장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산간 오지 등 취약지역 군민을 위해 마을단위 방문 접수, 우선 안내, 이장 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 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선불카드가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 신용·체크카드는 40%, 진안사랑상품권(모바일)은 4%로 나타나 군

민들이 지역 내 사용과 관리가 용이한 선불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은 9월 12일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진안사랑상품권(모바일)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전춘성 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여력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안내와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2차 지급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첫 '토마토' 정식

장수군, 8팀 24명 청년농 입주

장수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처음으로 토마토 10만 주를 정식하고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군 농군사관학교와 전국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리온실 3동 4ha에 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 시스템, 친환경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을 기본 3년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고가의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청년 농업에 도전하기 어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처음으로 토마토 10만 주를 정식하고 본격적인 영농에 돌입했다.

려워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기회를 줌으로써 청년층 유입과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어 미래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입주한 8개 팀 24명으로 구

성된 입주 청년농업인들은 텃밭 약 1,5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배정 받아 공동 경작하면서 영농 창업 초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청년 캠프 운영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캠프 '맛보니 진안'을 운영한다.

캠프는 8월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국에서 모집된 7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양도·제철 음식, 제과제빵 체험 △커피 강의 △다도 체험 △청년농가 및 청년센터 탐방 △로컬푸드직매장 방문 △진안역 사길, 생태숲 탐방 등 총 21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캠프 수료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교육 8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야적 가축분뇨 퇴비 관리 강화·주민 홍보

장수군은 농작물 수확 후 가축분뇨 퇴비를 야적하는 사례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폐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측사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빗물과 접촉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부속이 완료된 가축분뇨 퇴비는 덮개를 덮어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농경지 및

도로변 가축분뇨 무단 적치 △부속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퇴비 살포 등이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출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읍·면별을 통해 농가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적치나 퇴비화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발견 시 즉시 군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세계 태권도 선수들, 무주 모인다

'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태권도원서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군수 황인홍),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와 함께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이하 그랑프리 챌린지)'를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그랑프리 챌린지'는 올림픽 출전 기회 확대 및 신인 선수 발굴 등 태권도 대중화를 위해 2022년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WT)과 태권도진흥재단이 함께 신설한 G-2 등급의 국제 공인 대회이다. 그간 많은 신인 선수들을 발굴하였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박태준 선수(경희대학교)도 2024년에 열린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간판선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랑프리 챌린지'에는 4명의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참가한다. 박태준 선수(남 -58kg, 대한민국)를 비롯해 피라스 카투시(남 -80kg, 튀니지), 김유진(여 -57kg, 대한민국), 엘시아 라우린(여 +67kg, 프랑스) 선수들로 이들을 비롯해 9명의 올림픽 메달 수상자 등 35개국 534명의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가한다. 남자 -58kg급에서는 박태준 선수와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 김종명 선수(원인대학교), 코리아준비 배준서 선수(강화군청)의 대결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이번 대회 입장자들은 상금과 G-2 등급의 올림픽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동시에 1, 2위 입상자에게는 내년 9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G-6 등급의 '무주 태권도원 2026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을 획득하게 된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2022년에 신설한 그랑프리챌린지가 해를 거듭하며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라며 "이번 대회 준비와 함께 유일한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난민 선수 지원과 버추얼 태권도 등 올림픽 정식 실현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들과 무주형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가져

무주군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에 나선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춰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4일 무주군로컬JOB센터에서 센터 실무 관계자는 물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청년 고용 실태, △일자리 지원 사업 제안, △관련 단체 간 협력 방안 등이 상세하게 논의됐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과 직무 다양성 부족, 지역 내 '좋은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도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청년 주도의 일자리 사업 발굴과 청년 참여 기회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와의 간담회,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양질의 무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덕유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탐방행사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여름 아열철을 맞아 탐방객과 아열철을 위한 특별한 생태·문화체험형 '달빛 아래 영화 소풍' 탐방 행사를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의 영화 체험을 통해 탐방의 감동을 확장하고, 국립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무주군 '2025년 아간관광진흥도시 공모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50년 간 자연을 지켜온 국립공원의 역사성과 탐방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덕유산아열철 소집회장에서 5일간 매일 저녁 상영되는 영화는 자연, 환경,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 탐방객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상영 전·후에는 영화인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돼, 문화적 몰입도를 더한다. 또한 탐방안내소에는 영화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도서관' 코너를 조성해 탐방객을 만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중장비 교육생 모집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진안군민과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안군청년센터와 협업체 중장비(굴착기, 지게차)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청년과 일반 군민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청년 모집은 8월 5일(화)부터 6일(수) 오후 5시까지 진안군청년센터를 통해 추천·연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굴착기 3명, 지게차 3명이다.

일반 군민은 8월 7일 오전 8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모집 인원은 굴착기 5명, 지게차 5명으로 총 10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